論 文

근대기 한국 미션계 학교에서 시도한 목공교육에 관한 사적 고찰

A Historical Study on the Woodwork Education at Mission Schools in the Early Modern Times in Korea

정창원*
Chung, Chang-Won

Abstract

This research has a purpose to review architectural education in the early modern times in Korea. Although the mission school had some programs on basic woodworks, which were for architectural technicians afterwards, it has not been paid attention yet.

Missionaries recognized the problematic situation that the most western-styled building all over Korea were built by Chinese or Japanese technicians, and they made up the minds and tried to train Korean apprentices. This training program couldn't be developed to the authorized curriculum, and moreover was limited that it was concentrated on just woodwork training; however, the missionaries made their best endeavor to overcome the deficiency of skillful technicians. At the woodwork department of the mission school there were occasionally effective programs, for example, a training of drawing or an actual participation at the real construction site.

Mission schools could be said to offer the helpful programs for the early education on newly coming architecture.

키워드 : 기독교, 미션 스쿨, 목공교육
Keywords : Christianity, Mission School, Woodwork Education

1. 서론

근대식 교육의 실시는 글과 윤리, 사상을 가르치는 것 외에, 그리고 단순히 수공예 기능을 도제식으로 전수하는 것이 아닌,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과 함께 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의 근대식 교육은 개항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기본적인 틀이 잡히기 시작하였다고

* 정회원, 東京大學 生産技術研究所 技術補佐員, 공학박사

볼 수 있다.

개항과 더불어 한국은 근대국가를 지향함에 있어서 근대적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영선사 및 신사유람단이 중국과 일본의 산업 및 교육을 시찰하였고, 또한 1899년부터 계획된 상공학교와 1904년에 개교한 농상공학교의 설립을 보게 되었으나, 이들 학교는 결국 건축분야의 근대적 교육 실시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이후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건축교육은 공업전습소의 목공부를 시작으로 경성고등공업학교, 소화공업학교 등, 일본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의해 주도되어왔고, 건축교육의 내용과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1]가 여러 편 발표되었다.

그러나 개항을 기점으로 내한한 선교사들과 그들에 의해 설립된 미션계 학교에서 건축기술자 양성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었다.

한편 한국에서 출간된 선교활동의 보고서 성격의 월간 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 (1905-1941년)』의 문헌조사를 통해 미션계 학교에서 건축관련의 목공교육이 시도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초점을 두고, 미션계 학교가 건축기능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시도한 배경을 비롯하여, 교육의 내용과 영향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설령 미션계 학교에서 실시한 교육이 근대적 건축교육으로서의 설계교육을 비롯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초보적인 것이었을지언정, 일제강점기의 한국근대건축에 다양한 외래의 요소가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에 또 다른 시각을 보완하는 의미의 연구가 될 것이다.

2. 기술교육의 필요성 대두

개항 이후 부국강병과 국가근대화를 목표로 한 한국은 기술교육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그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1899년 고종은 "우리나라의 인재가 반드시 외국에 못하지 않을 터인데, 일찍 가르침이 없었으므로 지견이 열리지 못하고 농잠(農蠶)의 공업이 일지 못한 결과로 민산(民産)이 날로 줄고 국계(國計)가 어두우니 5, 6년 내에 한치 만큼도 나아간 효과가 없고, 상공학교에 이르러서는 더욱 급선무로 일찍 지나간 해에 칙어를 내렸건만 이제까지 개설의 논의조차 없으니....(중략)....참으로 개연하도다"[2] 라고 실업교육을 독려하였다. 또한 외국인 교사를 초청하여 공장학교(工匠學敎)를 설립하여 공업을 발전시키고(목수일을 가르치고) 그것과 함께 상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의 급선무"[3] 라는 독립신문을 사설을 비롯하여, 황성신문 등 당시 언론매체에서도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계몽적 성격의 기사들이 여러 차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술교육의 필요성은 비단 한국의 지식인뿐만 아니라 당시 전도활동을 위해 내한해 있던 서양인 선교사들도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실제로 1910년대의 한국건축계는 이미 한국에 진출하였던 일본인과 중국인 건설업자들이 크고 작은 건축청부를 맡아 활약하는 등, 건설활동의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건축계를 포함한 산업계에 대해 2개월간 조사활동을 벌인 브로크만(Frank M. Brockman)은 대부분의 서양식 건물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은 책을 읽는 공부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어떻게 토지를 개척할 것인지, 어떻게 건물을 세울 것인지 등의 산업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4]

1)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4호 (1983년 10월)
양상호, 20세기 전반기 한국의 건축교육에 관한 실증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1권 1호 (1992년 6월)
류전희, 근대건축교육학제의 형성과 특성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안창모, 일제하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건축교육,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6호 (1998년 6월)

2) 增補 文獻備考, 學敎考, (김정동, 한국 근대건축교육의 기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권 114호, p.10에서 재인용)

3) 독립신문, 1899년 5월 22일 사설, 전게서(2)에서 재인용

또한 카터(J. T. Carter)는 서울 YMCA가 실시한 기술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기술자층,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해서 불행을 당해야만 했다. 한국은 세계의 각국에 자신의 명예와 위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YMCA와 같은 기관은 이 나라의 미래건설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5] 라고 산업계를 발전시켜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당시의 한국사회가 기술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그로 인한 숙련된 기술자의 부재로 기술산업이 쇠약해졌고, 이에 따라 산업, 경제적으로 맹렬히 침투해 오는 열강에 맞서지 못하여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루카스(A. E. Lucas)는 한국에 있어서 기술교육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6]

1. 이 나라가 무의식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층 더 산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정에 있어서 자립경영이나 독립정신이 필요하다.
3. 각 개인에 있어서 산업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계가 급속도로 산업과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속에서 한국은 동양의 단순 노동자(Coolie)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4. 최종적으로 각 개인의 삶의 향상이 필요하다. 또 도덕이나 종교적 진보가 가능한 기본적 생활이 가능할 때, 비로소 공예운동(Arts and Crafts)에 대한 자각 또한 수반될 것이다.

또한 루카스는 위의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기술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지도자 확보와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고민하였음을 알 수 있다.[7]

1. 선교사 자신에 의한 교육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그것은 영구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
2. 일반 훈련원, 또는 기술계의 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들 학교는 미션계의 연희전문학교 산하에 지도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농업이나 양잠업뿐만 아니라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학 등의 부서를 설치해야만 한다.
3. 발전되어 있는 일본에 학생을 파견하는 방법, 또는 기독교 신자인 일본인 지도자를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상과 같이 기술교육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인식한 선교사들은 실제로 그들이 설립한 미션계 학교에 수공부(手工部, Industrial Department)를 설치하여 한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술교육을 시도하였다. 이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인 선교사들 자신이 미국의 대학에서 이와 비슷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일례로 선천(宣川) 지방의 개척을 담당한 개척선교사 샤록스(A. M. Sharrocks)는 미국의 파크 컬리지 출신으로, 이 학교에서는 재학생들에게 황무지나 다름없는 해외의 선교지를 개척할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8] 그 결과로 샤록스는 의료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에 세워지는 초기의 미션건축을 비롯하여 미션 컴파운드[9]의 배치계획까지 소화해낼 정도로 건축에 대한 능력이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10] 내한한 선교사들은 이와 같은 자신이 받은 직□간접의 건축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미션계 학교에서도 목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인 스스로가 낙후된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3. 미션계 학교에서 시도한 기술교육

선교사에 의한 기술교육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

4) Some of the Problems of Industrial Education in Korea- A Partial Report of a Lecture Delivered Before the Educational Society in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1910년 7월호, p.172
5) The Principal Mission School of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1920년 8월호, p.159
6) Industrial Work- The Importance and Opportunities for Industrial Work in Mission School in Chosen, The Korea Mission Field, 1918년 10월호, p.205
7) 전게서(6)
8) Honest Labor Makes The Man,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9월호, p.269
9) 미션 컴파운드(Mission Compound): 미션 스테이션이 선교사가 상주하며 활동하는 거점도시를 칭하는 표현이면, 미션 컴파운드는 그 거점도시 안에서 선교사들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교회에서 구입한 선교부지(선교촌)를 가리킴.
10) Personalities, The Korea Mission Field, 1939년 6월호, p.122

립된 미션계 학교인 배재학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887년에 완성된 배재학당 건물은 한국에서 세우진 최초의 서양식 미션건축으로 그 건축계획에 있어서 처음부터 지하실에 수공부를 위한 공간이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

배재학당에 수공부가 설치된 것은 한국인의 육체노동을 경시하는 풍조를 파악한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이었다. 이 수공부에서는 출판과 인쇄 교육을 실시하였고, 후에 삼문출판사로 발전하여 기독교와 관련된 서적을 비롯, 독립신문도 이곳에서 인쇄하였다.

배재학당에 이어 평양 숭실학교에서도 1898년에 수공부를 설치하였다. 그 당초에는 짚신, 모자 등의 간단한 일용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중심이었지만, 19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기술교육을 위한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Anna Davis Memorial Shop)로 발전해 나갔다.[12]

또한 그 외의 선교 거점도시에 설립된 미션계 학교 대부분에 수공부가 설치되었고, 그곳에서는 사진, 기계, 제화, 양장, 조경, 가구제작, 건축(building) 등의 다양한 기술교육이 이루어졌다.[13] 특히 개성에 설립된 송도학교는 수공부에 직물부(Textile Department)를 설치하여 「Korea Mission Cloth」라는 상품명의 의류를 생산하였는데, 이 상품은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일본 등지에 수출되어 그 품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14]

이상과 같이 미션계 학교에서 실시한 기술교육은 단순한 기술의 이론적 교육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실물교육이었다. 이는 기술교육을 통한 생산활동과 그 수익으로 재학생들의 경제적 자립과 한국교회의 경영자립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네비우스 선교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생산과 수익이라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이는 미국 선교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개된 한국의 선교사업이 실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11)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87년도, p.313
12) H.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pp.73-75
13) Korean Mission School Boys,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7월호, p.202
14) A Character Factory, The Korea Mission Field, 1924년 9월호, p.191

4. 목공교육을 시도한 미션계 학교

한편 이들 미션계 학교 중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목공교육을 실시한 학교도 출현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서울 YMCA, 평양의 숭실학교, 개성의 송도학교의 수공부의 활동을 고찰하기로 한다.

4.1. 서울 YMCA 수공부

서울 YMCA는 기독교 청년활동 뿐만 아니라 한국인 비기독교인 청년들에게도 근대식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 YMCA에 수공부가 설치된 것은 "YMCA의 지도자들은 일찍이 한국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훈련된 기술자라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도구 및 간단한 기계에 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거기서 교육을 받은 청년들은 이 나라의 역사에 전혀 없었던 확고한 중류 기술자층을 구성하고 있다. (중략) 그리고 YMCA와 같은 기관은 이 나라의 미래 건설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15] 라는 글에서도 그 목적을 알 수 있다.

서울 YMCA 수공부는 당초 한국인 청년 몇 명이 Joseph's Carpenter Shop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으로부터 시작, 점차 성장하였다. 이후 4년제 고등교육 과정, 야간 상업학교 과정, 타자 및 외국어 과정, 그리고 7개 분야의 특별 기술학교로 발전해 나갔다.[16] 이 기술학교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에게 입학허가가 주어졌고, 특별히 필요로 하는 과정에서는 제도와 수학 교육

15) The Principal Mission School of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1920년 8월호, p.159
16) Educating Hand and Brain- Report of Seoul, Korea, YMCA Education Work,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6월호, p.170

도 병행되었다.[17]

특히 7개 분야의 특별 기술학교에는 목공 기술을 가르치는 목공부(Woodwork Department)가 설치되었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건축교육 실시에 있었음을 다음 인용문으로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모든 서양식 건물이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건설 청부업자들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에 목공(woodwork)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당초 건축교육 과정(a course of architectural work)을 개설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대신 가구부(Furniture Department)를 설치하여 우선 기본적인 목공 기술부터 가르치기로 결정하였다."[18]

가구제작을 중심으로 한 목공부는 1910년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특히 한국 YMCA의 창립자였던 질레트(P. S. Gillett)는 1910년에 휴가차 방문하였던 미국에서 YMCA 수공부의 교육시설을 위해 1만 달러를 모금하여 한국에 복귀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토론토로부터 목공교육을 위한 지도자로서 터너(G. Fred Turner), 그리고 기계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힐톤(H. Hylton)을 초빙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YMCA 수공부의 기술교육은 내실을 기하였다.[19]

한편 목공교육을 담당했던 터너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단, 중국의 북경 YMCA의 요청으로 터너가 그들의 새로운 건축과 주택 공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1912년 5월에 북경에 파견되었다는 기록[20]을 통해 건축에 관한 조예가 깊었던 전문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에 의한 교육은 앞의 인용문에서 설명하였듯이, 예산문제로 본격적인 건축교육의 실시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구제작을 중심으로 한 기본적인 목공교육이 중심이 되었다.

이곳에서 제작된 가구에 대해서는 안동에서 활동한 한 여성선교사가 서울 YMCA의 질레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녀의 편지는 서울 YMCA가 제작한 가구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에 있어서도 미국의 유명한 가구회사 몽고메리 와드(Montgomery Ward)의 가구보다 우수하며, 한국인의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한다는 내용이었다.[21] 이 편지 내용을 통해 YMCA 목공부에 의해 제작된 가구는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 가구는 한국의 전역에서 주문이 쇄도하였다. 실제로 1913년도 목공부 활동보고에 의하면, 의자, 탁자, 책꽂이, 사무가구 등의 제작을 통해 4,418엔의 수입을 획득하였다.[22] 또한 터너가 북경으로 파견되었던 1912년에는 이곳의 졸업생인 김씨라는 성을 가진 한국인과 1명의 중국인이 목공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전국 각지로부터 가구의 주문 양이 많아 3명의 한국인 도편수의 협력에 의해 많은 주문을 해결할 정도였다.[23]

여기서 서울 YMCA 목공부에는 선교사 이외에 한국인과 중국인의 지도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인 김씨는 1908년에 이 목공부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설립당초부터 목공부를 지도했던 중국인 지도자의 역할을 대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았다.[24] 한편 이 중국인 지도자도 선교사로부터 건축과 기계제도를 배운 이후 건설업자로 성장하였는데, 이후 YMCA 수공부의 새로운 교사건물 공사를 담당하였고, 그 외에도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비롯하여 미션본부에서 서울에 계획한 2동의 건물을 청부하였다. 이에 한국인 김씨도 건설업자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주야로 성실히 일을 하였다고 한다.[25] 즉, 김

17) 전게서(15)
18) A Trip Through The Industrial Department of The Seoul YMCA, The Korea Mission Field, 1914년 10월호, p.316
19) News Items, The Korea Mission Field, 1910년 12월호, p.295
20) 전게서(16)
21) Letter from a New Missionary on Installation in Her First Mission Field and Home,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12월호, p.367
22) 전게서(18)
23) 전게서(16)
24) 전게서(18)
25) 전게서(18)

씨의 사례는 서울 YMCA 목공부의 설립당초의 목표이기도 한 건축기술자 양성에 있어 그 실효를 거두어 가는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인 지도자가 공사를 담당한 YMCA 수공부의 새로운 교사건물은 1914년에 완성되었다. YMCA 회관의 뒤쪽에 벽돌조 3층 규모로 완성된 새 교사는 가스 엔진과 전기 프랜트에 의한 발전설비와 목재용 스팀 건조기 등의 설비가 마련되어, YMCA 목공부는 물론이고, 한국 전체에 있어서도 도편수들이나 건설업자들의 실질적인 교육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한다.[26]

4.2 평양 숭실학교의 수공부

한편 1897년에 선교사 베어드 주택 사랑방에서 출발한 숭실학교는 다음해에 수공부를 설치하였고, 1920년대에 이르러서는 수공부를 발전시켜 공과대학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초기의 수공부 교육은 1902년 새로운 수공부 건물로 계획된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의 완성을 계기로 기술교육에 관한 체계를 갖추기 시작되었다.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교회와 숭실학교 본관 등 평양에 세워진 초기 북장로교의 미션 건축 대부분을 계획한 개척선교사 그래함 리(Graham Lee)에 의해 본격적인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 교육내용은 목공교육과 철공교육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1907년부터는 새롭게 내한한 맥머트리(Robert M. McMurtrie)가 가세하면서 숭실학교 수공부의 기술교육은 내실을 다졌다.[27]

이 수공부의 목공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초기의 평양 미션건축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그래함 리와 더불어 목공교육을 담당한 맥머트리 또한 평양외국인학교와 선교사 베스트의 주택 등의 건설을 지도□감독하며[28] 1933년에 선교활동에서 은퇴할 때까지 평양과 그 주변의 미션관련 건축에 종사하였다는 기록[29]으로 미루어 볼 때, 숭실학교 수공부의 목공교육은 건축에 종사한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숭실학교의 새로운 기숙사 건설에 있어서 도편수가 해야 할 일부의 일을 수공부 학생들이 직접 하였다는 기록[30]을 통해 학생들이 건설활동과 관련된 현장교육을 받는 기회 또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공교육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후에 건설업자로 성장한 이가 있었다. 1932년에 대구 제일교회의 대규모 벽돌조 예배당 건축공사를 담당한 한국인 건설업자 김충식이 그 일례이다. 김충식은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의 맥머트리에게서 처음으로 목공기술을 배운 것을 계기로 건설업자로 성장하였다.[31] 김충식의 예는 미션계 학교의 목공교육이 건설업자로 성장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교육이었음을 시사해준다.

한편 숭실학교는 이후에 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으로 발전하였고, 대학 내에 농과와 함께 공과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기존의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에서 실시한 목공과 철공과정의 양부를 확장하여 공과를 설치할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농과와 공과의 설치를 위하여 교수진도 강화하였다. 미국인 농학사 루츠와 미국인 공학사 쏠토(Soltau)를 채용키로 하였으며, 그밖에 이 방면의 한국인 교수도 물색하였다.[32]

미국 토목기술협회 회원이었던 쏠토(David L. Soltau)[33]는 1921년 6월 1일에 숭실대학의 교육선교사로 내한하여 192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34] 그리고 그는 1924년부터는 기계제도(Mechanical Drawing)와 물리실험 등도 담당하는 등,[35] 폭

26) 전게서(18)
27) H.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p.75
28) School for Missionaries Children, The Korea Mission Field, 1915년 5월호, p.14
A Woman's Work,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2월호, p.63
29) 내한선교사총람, p.373
30) Notes from the St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3월호, p.74
31) What is Interesting the Korean Church, The Korea Mission Field, 1933년 7월호, p.145
32) 숭실대학교 100년사-(1)평양숭실편, p.285
33) 朝鮮と建築, 1928년 3월호, p.138 이 잡지에는 평양숭실전문학교의 설계자로 David L. Soltan 이라고 게제되어 있으나, 정확한 건물명은 숭실전문학교의 과학관(Science Hall)이며, 설계자의 이름 Soltan은 Soltau의 오자임.
34)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922년도, p.93

넓은 공학적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다. 또한 그는 숭실대학 과학관과 숭실중학교를 비롯하여 평양외국인학교 등, 다수의 건축을 담당한 건축전문가로서 활약하며, 평양에 본격적인 서양식 미션건축을 구축해나갔다.

숭실대학은 1928년에 농과 설치를 총독부에 신청하여 같은해에 인가가 되었고, 1931년에 농과가 설치되었다.[36] 그러나 농과와 같이 계획된 공과 설립계획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공과와 여자 가사과 설치를 통하여 장차 종합대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으나, 일제의 가중된 탄압으로 1938년 3월에 학교의 문이 닫히고 말았다.[37] 결국 쏠토는 공과 설립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1929년 6월 17일에 미국으로 귀국하였다.[38]

이 사실로써 농업은 장려하되 공업기술의 발전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던 당시의 시대상황에 맞물려 미션 스쿨에서의 기술교육도 어려움을 겪었음을 짐작케 한다.

4.3 개성 송도학교의 수공부

송도학교도 1906년, 개교 직후부터 몇 가지의 새로운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수공부의 개설이었다. 그리고 1907년에 톰슨(J. A. Thompson)이 수공부를 담당하기 위하여 내한함과 동시에 수공부의 교육활동도 본격화하였다.[39] 또한 이 수공부는 그의 요구에 의하여 미국에서 여러 장비와 도구를 구입하여 한국에 들여왔고, 교육을 담당했던 톰슨의 지도로 화로 등을 직접 건설하는 등 여러 설비들을 갖추면서 실무교육을 병행하였다.[40] 특히 수공부의 교장이었던 톰슨은 건축가로서의 활약이 대단하였다.[41] 그는 자신의 활동 근거지였던 개성은 물론, 서울, 원산, 춘천 등 그가 소속된 남감리교의 선교거점 도시에 세워진 대부분의 미션 건축을 설계하고 직접 공사지도도 담당하였다. 그는 1908년에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송도학교의 설계 및 공사감독을 담당함으로서 본격적인 건축활동을 시작하였다. 또 1908년의 겨울에 그는 호수돈 여학교의 새로운 교사건물을 설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였고, 다음해 여름에 건축공사를 직접 지도□감독하였다.[42]

그 외에도 톰슨은 다수의 미션건축을 담당하였는데, 여기에 참여한 한국인 도편수들은 그에게서 직접 서양의 건축기술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송도학교 수공부와 별도로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건축기술자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실효를 거두었기에 그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톰슨은 건설활동에 있어서 항시 한국인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배려하였다. 어느 정도 건축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중국인에게 건설을 맡겨도 되었으나, 일부러 미숙한 한국인에게 시간을 투자하여 서양건축기술을 가르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그는 원산에서 담당한 건축 중에서 2동의 건물을 한국인과 더불어 공사를 진행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인 석조건축은 이전에 석조건축의 시공을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국인에게 맡겨 건설을 지도하였다.[43] 이처럼 톰슨에게서 서양의 건축기술을 배운 대표적인 한국인으로서 아래의 인물을 파악할 수 있었다.[44]

1. 김영식: 톰슨의 내한 직후, 그의 가족에게 한국어를 지도하는 등, 그의 협력자로서 활동하였다. 이후, 1913년부터 건축관련의 일에 종사하게 되었고, 서울 수표교 교회의 공사를 담당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2. 김운배: 톰슨이 원산에 있을 때, 콘크리트 배수관 건설을 담당하였고, 후에 원산의 루씨

35) 전게서(34) 1923년도, p.101, 1924년도, p.54
36) 전게서(32), p.285, p.288
37) 전게서(32), p.290
38) 내한선교사총람, pp.473-474
39) Field Notes, The Korea Mission Field, 1907년 10월호, p.148
40) Report of The Anglo-Korean School, Songdo, The Korea Mission Field, 1908년 11월호, p.166
41) 남감리교의 연보고서에는 1908년까지 송도학교의 담당자로 표기되어있으나, 1909년부터는 건축담당자로 명기되어 있다.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8년도 p.15, 1909년도 p.22)
42) A Constructive Retrospect; Six and A Half Years of Building Work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14년 9월호, p.271
43) 전게서(42)
44) 전게서(42)

여학교와 미션 병원의 난방설비 등, 주로 설비분야를 담당하였다.

3. 이원구: 톰슨의 건축활동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충분한 건축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톰슨은 원산의 학교건설에서 증명된 그의 건축적 능력을 인정하여, 1913년부터 개성에 그를 불러들였다. 개성에서 그는 선교사주택의 건설에 참여하였고, 개성 북부교회는 그가 모든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상의 한국인은 건축을 전문으로 했던 선교사 톰슨에게서 직접적인 건축기술을 배우게 된 사례이며,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은 미션계 학교에서의 목공교육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직접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톰슨은 남감리교가 계획한 건축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수공부에서의 교육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본래의 내한 목적이었던 수공부의 목공교육에도 열의를 쏟았다.[45] 특히 그는 목공교육과 더불어 제도교육도 실시하였고, 그 성과로 몇 명의 학생은 훌륭한 제도공으로 성장하였다고 한다. 이들 제도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톰슨이 연필로 설계한 건축도면을 최종도면으로 완성시켜 청사진을 구웠다는 기록[46]을 통해 그에게서 제도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는 최종 설계도면을 완성시킬 정도의 수준에 이른 이들 또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션계 학교에 있어서의 목공교육은 앞에서 살펴본 제도공으로 성장한 송도학교의 학생을 비롯하여, 서울 YMCA의 김씨나 평양 안나 데이비스 기념 공작소 졸업생인 김충식이 건축기술자로 성장한 예와 같이 다수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남겼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목공을 중심으로 한 기초적인 교육에 머물렀던 한계 또한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1920년대에 평양의 숭실대학에서 공과를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미션계 학교에 본격적인 건축교육을 실시하는 학과가 설치되지 못했음은 유감으로 남는다.

이처럼 미션계 학교의 목공교육이 가지는 한계와 근대적 건축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 예일대학의 신학부를 졸업한 후, 남감리교의 총리사까지 역임했던 양주삼이 1928년의 『The Korea Mission Field』에 투고한 기사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수, 석공, 벽돌공, 배관공 등의 기술자를 교육하는 몇 개의 본격적인 기술학교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기에 이른다.[47] 그러나 그 이후에도 건축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본격적인 미션계 교육기관의 설립을 보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

5. 결론

지금으로부터 백 여 년 전, 당시의 한국사회는 한국인 기술자와 이들을 양성해내는 기술교육이 부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미션계 학교에 설치된 수공부가 건축과 관련된 목공교육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은, 개항이후 급변하는 한국 건축계에 요구되어진 시대적 사명과 이를 위한 하나의 모색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 미션계 학교에서 목공교육을 시도한 것이 개항이래 한국의 건설시장을 장악했던 일본인 및 중국인 건설기술자들과 대항할 수 있는 한국인 건축기술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미션계 학교에서 실시한 목공교육이 수공부라는 비정규과정 속에 설치되어 있었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또한 전문적 건축교육기관으로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나, 선교사들이 당시의 시대요구에 부응하여 한국인 건축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은 새롭게 평가되어져야 할 것이다.

45) 전게서(42)

46)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09년도, p.59

47) The Condition of the Christian Church i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28년 9월호, p.189

참고문헌

1. The Korea Mission Field, 1905–1941년, (영인본 全37冊: 한국기독교사연구회 발행, 1986년)
2.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897–1909년, 1913–1919년
3.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84–1943년
4.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Methodist Episcopal Church, South, 1997–1925년.
5. H. H. Underwood, Modern Education in Korea, International Press, New York, 1926년
6. 조선건축회, 朝鮮と建築, 1928년 3월호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총람, 1994년
8. 同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평양숭실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7년
9. 同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대구제일교회 백년사, 대구제일교회, 2000년